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지하 700m 갱 속에 갇혀 있다가 69일 만에 구출된 칠레 광부들은 지난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매몰~구조, 3대 안전 포인트', '69일 인내의 결실~돈방석 앉을까?', '소송, 인터뷰, 책 판권-땅 위에 기다리는 노다지', 'TV 나와 달라, 성급 주겠다'-33일 영웅, 돈 인기 거머쥐다' 등의 선정적인 제목 밑에, 구출된 광부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인기를 얻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신문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사와 더불어 어느 신문에서는 1967년 충남 청양의 구불 광산에서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양창선씨를 찾아내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아, 그 양창선씨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1960년대를 겪은 사람치고 그의 구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처럼

랍 라디오로 현장 생중계되어 전국민을 가슴 졸이게 하고, 박수와 환성을 터뜨리게 했던 양창선씨. 인터넷에 누군가 올려 놓은 당시의 구조 뉴스에서는 "단결된 인간의 힘 앞에 절망은 없는 것임이다"라는

칠레 광부들과 詩, 그리고 마스크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이런 인간 승리의 메시지는 이 사건을 재현한 영화 '생명(1969)'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 얼마 전 교육방송(EBS)에서 다시 틀어준 영화를 보니 장민호, 남궁원, 허장강 등 왕년의 스타들의 얼굴도 반갑고 화면 속의 배경도 옛날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정겨웠다.

그러나 1974년 10월에 초연된 윤대성의 드라마 '출세기'는 양창선씨 사건을 모델로 한 작품이지만 마스크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로 구출 광부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출세했다가 인기가 식자 본래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기주 연출로 동양레퍼터리 극단

이 공연한 이 드라마에는 이호재, 윤소정, 추송용, 전무송, 박영규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윤대성은 1970~80년대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수사반장'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출세기'에서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마스크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다 보니 마스크의 속성을 더 잘 알게 되어 이런 드라마를 썼다고 한다. 한편 소리꾼이 자 연출가인 임진택은 1978년 이 작품을 '마스게임'이라는 제목의 마당극으로 각

색하여 이화여대 연극반과 함께 대학 구내에서 햇불을 켜놓고 공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칠레 광부들과 관련된 뉴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지하 대피소에서 파블로 네루다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를 낭송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다는 소식이었다. 그렇지만 두 시인이 칠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마치 노벨상 수상자인 유명시인이었기 때문에 광부들이 두 시인의 시를 낭송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본말이 바뀐 듯하다. 두 시인이 노벨상 수상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가 광부들의 처지와 정서에 맞았기 때문에 극한상황에서 광부들이 그들의 시를

낭송했을 테니까 말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다면 광부들이 시를 낭송했을까하는 가정법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이 시를 사랑하지 않는 한국의 척박한 문화 풍토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고 묻는 것도 뭔가 문화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노벨상 지상주의'적 문제 제기로 보인다. 문제는 시인과 작가를 알광한 문예진흥기금 몇 푼으로 읊아매려는 정부의 문화정책과 공영 방송에서 칠레라는 나라 이름을 '칠레?'로 고쳐 부르며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유치한 말장난이나 하는 우리나라 마스크의 풍토가 아닐까?

그보다는 두 시인이 왜 칠레 광부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외교관이자 시인인 네루다가 어떻게 광부들의 지지를 상원의원이 되었고, 네루다가 왜 태평양을 내다보는 이슬라 네그라 해안의 별장을 광부들에게 유증(遺贈)했는지, 그가 1970년 7만명 군중 앞에서 시낭송을 한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에서 1973년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 직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는지, 네루다의 탄생 100주년인 2004년 이제는 네루다 박물관이 된 이슬라 네그라 해안 별장에서 벌어진 축하 행사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전해줄 수는 없었을까?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영암 F1 D-3, 편의시설 점점 만전 기해야

국내 최초의 F1(포뮬러원) 영암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지구촌 이목이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인 F1대회가 열리는 영암에 쏠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암 F1대회는 전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영암 F1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개막을 목전에 둔 영암 F1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경주장 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각종 편의 시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칫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F1은 경기당 평균 20만 명, 연간 4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전 세계에서 6억 명의 시청자가 경기를 시청하는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로 손꼽힌다. 이번 영암 F1에도 20만 명 안팎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관광객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머물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남의 이미지가 좌우되는 것이다. 본보가 지난 16일 영암 F1 경주장이 길을 점검해 본 결과 대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점이 많았다고 한다. 우선 F1 경주장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무안공항에서부터 영암 F1을 알리는 팸플릿이나 플래카드 하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에서 나와 경주장으로 가는 길에도 이정표가 부족하고, 고속도로에는 안내 입간판조차 없었다. 국내의 관광객들이 경주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다.

길 안내판 외에도 숙박시설, 음식점, 경주장 주변 환경 등 각종 편의시설에 미비점은 없는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들을 맞는 지역민의 태도도 친절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역 이미지 제고에 F1경기 자체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각급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화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유해업소가 매년 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정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895곳으로 지난해 말 847곳보다 48곳이, 2008년의 793곳에 비해 102곳이 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학교 수가 300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학교 당 3곳이 있는 셈이다.

특히 노래연습장 209곳, 당구장 162곳, PC방 162곳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 10곳 중 6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화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유해업소를 해제하는 비율도 74.7%나 돼 제주(88.6%)와 대전(76.5%)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심의한 75건 중 56건이 해

제돼 유해업소 등 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화위원들이 '탁상 활동'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중요 심의 과정인 정화위원들의 현장 방문율이 전국 최저인 48%에 불과하다니 말이다. 절반 이상은 아예 현장에 가지도 않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부산시 등 전국 11개 시·도 정화위원회의 현장 방문율이 100%라는 사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광주지역 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학교 정화구역이 도입된 것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정화위원들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현장 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정화위원들을 즉시 불합격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을 담보로 이제 더 이상 직무유기를 안 된다.

無等鼓

얼마나 신겨주고 싶었을까? 가난하지만 6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끔찍이나 사랑했던 광주의 한 30대 주부는 판매대에 가지런히 진열된 양중맞은 아기 양말에 흠뻑 반하고 말았다.

이 주부의 남편은 화물 트럭 운전자. 월 100만원의 수입으로 근근이 여덟 식구가 입에 풀칠하는 정도여서 부자집 부모들이 부담없이 고를 수 있는 명품은 고사하고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입고 먹이는 게 소망이었다. 돈에 쪼들리던 그녀는 마침내 양말과 신발 등 하나 둘씩 어린이용품점을 훑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도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남을 터. 그러나 새 양말과 신발을 보고 즐거워할 아이들 생각에 그녀는 잠시 죄의식을 망각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이들 물건을 몰래 가져다 입고 신기기를 거듭했다. 피라기 같은 잡히는 법. 그녀는 열 번이 넘도록 100만원에 이르는 아이들 물건을 매장에서 몰

래 가져간 사실도 드러나 입건되고 말았다. 혐의는 당연히 '절도'다.

<본보 10월 16일자 1면> 6남매 엄마의 '사건'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책이 전무에 가깝다는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구체적인 대안없이 "아이를 많이 낳자"고 외치

는 당국의 무방비가 어떤 슬픔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다.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보도 이후 6남매의 엄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울방을 향한 6남매를 입히고 먹이랴 끄는 엄마의 마음에 다소나마 위로를 건넬하겠다는 따뜻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6남매 엄마의 행동을 미화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아기 양말' 이야기는 서민을 위한 당국의 책무와, 이웃사랑을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아기 양말



NGO 칼럼

서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창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내·외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1969년 이후 국가가 건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법률적 근거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학

원인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을 즐기려 해도 서로 학원 스케줄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놀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놀이공간이나 놀이문화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어디서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용 가능한 컴퓨터 게임기가 1등 놀이감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며 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절대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교육활동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 청소년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소한

청소년교육 우리 모두가 나서야

교 교육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학교교육과 연계된 청소년 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의 초·중·고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5%에 이르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은 10대 청소년 96%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80%가 인터넷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67%가 공부(성적, 적성)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며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10%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데 성적, 진학 문제가 주요

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굳이 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의 지역단위 이관으로 인한 일시적 편익 이상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보다는 교사와 청소년 전문가의 지속된 노력으로 순수 불탄터제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육성에 관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면 청소년 문제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아홉 희망입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수정해나가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청소년 활동도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

농촌 빈집털이 극성... 농민 스스로 예방활동 강화해야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영농철이다. 농촌에는 적잖은 현금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틈을 이용해 농촌 빈집을 털어가는 파렴치범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가스 검침원 등을 사칭해 농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훔친 것을 하고 있다.

필자의 고향 마을에서는 이 때문에 마을에 오는 차량 번호를 전부 적어두고 있다. 또 매일 단번을 정해 농사일 대신 마을 순찰 하도록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법당국의 치안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일손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공동 방범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논과 밭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안방 서랍과 장롱이 난장판으로 어질러져 있는 일을 당한다면 일할 맘이 나겠는가.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기고

유순남



지난 주말(10월 8~10일) 전국 150개 학교들이 참여하는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가 열렸다. 좋은 학교 박람회 개최는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진행된 중인 혁신학교는 코드가 맞는 김삼곤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광주시도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임에 틀림없다.

전남에서는 이미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지개학교'를

로 기초 학력을 다지기는 하지만 중학교 과정 수업이 추가 되어야 하고, 상위 그룹과 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성적은 별 진전이 없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패배주의에 젖어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만일 초등교육과 과정일지라도 수학(劣學) 가능한 학교를 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면 학년이 차츰차츰 올라감에 따라 성취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이 즐거워지리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야구선수였던 이종훈은 2학년 성적이 전교 775명 중에서 750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 법대 입학과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공부의 신으로 등록했다. 그는 고등

참 좋은 학교

지정하여 급년 2학기부터 영광고등학교, 해남 두문중학교, 화순 사평초등학교 등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 8개 학교가 실행에 들어갔다. 통폐합 대상이 된 작은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아 지역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고, 도시민 유치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좋은 학교와 혁신 학교, 무지개학교 모두 주입식보다는 자기 주도형 학습방법, 과밀학급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 친자연적 체험 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여기에 밀도 있고 구체적인 수준별 교육과 인성교육을 덧붙이고 싶다.

필자는 중학교 수준별 수업 수강강사로 최하위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아직 소수나 분수의 사칙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

'말다짐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교재

학교 3학년 1학기에 수학과 영어를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학년과과 수업을 하려면 평가방법 등 몇 가지 문제들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이다. 사회정화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더 절실히지도 모른다. 물이 오염되면 일급수의 물고기부터 죽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학벌에 연연하지 않도록 취업이나 보수(報酬)의 학력타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직종이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의식변화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실력에 맞는 맞춤형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학교, 그런 학교가 진정으로 참 좋은 학교가 아닐까?

<영광여자중학교 수준별 수업 강사>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